

## 2007년 학생4-H회원 해외(일본)그린배낭연수기

김 용 춘 대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7년 7월 말...

일본출장을 명령받았다.

그린연수의 성격을 보고 학교를 졸업한지 너무 오래되어 과연 일본인과의 대화가 통할까 라는 걱정도 많았지만 일단 한 번 가보기로 했다.

2007년 8월 12일 일단 근무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 들러 본 협회의 사무총장님과 함께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한국4-H본부로 향했다. 사전교육은 2시 30분부터 접수를 받고 3시부터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린배낭연수를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보게 되었다. 우선 조별로 나누어 앉아서 본 협회의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계약전인 내용과 간단한 일본어 회화를 배웠다. 저녁 식사 후에는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알아야 할 것을 알아보는 방법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취침에 들어가 갔다.

2007년 8월 13일 새벽 4시 30분 기상 국내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5시 30분 공항으로 향하였다. 여전히 일본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공항도착 후 김상익 가이드와 여행사에서 정경덕 과장을 만나 비행기표를 발권 받고 일본 입국시 입국카드 기재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이 와중에 학생 1명(김예진-2조)이 여권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본으로 출국치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아침식사를 하고 드디어 비행기에 오르는 시간... 은근히 참가자리를 기대했는데... 이런... 딱 한가 운데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고 나니 일본이란 다... 일정표상에는 1시간 30분 소요로 되어있었는데 40분만에 도착한 것 같다... 제주도 보다 더 가깝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하였다.

기내에서 이미 작성한 학생들의 입국카드를 김상익 가이드가 일일이 보살펴주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심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갑자기 한 학생(황지현 - 2조 : 이런 또 2조다 -. -;)이 갑자기 불러 입국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여권을 세탁기에 돌리신 관계로 위조여권으로 의심받아 조사차 간 것이었다. 30여분의 실랑이 끝에 가지고간 교재의 명단과 명찰의 성명을 대조한 후에야 겨우 입국할 수 있었다.

첫날부터 굶직한 이야기 거리가 많아진다.

무사히(?) 입국심사를 통과하여 대기하고 있던 일본 전세버스에 올라타고 후쿠오카시민방재 센터로 향했다. 일본이 워낙에 지진과 태풍이 많은 나라인 지라 그것에 대한 대비책과 훈련이 너무나도 잘되어 있었다.

지진체험에서는 진도 5와 7을 경험하며 피신방법에 대해 배웠는데... 그중에서 또 뛰어난 창의력으

로 절대 배운데로 피신하지 않고 소신껏 식탁과 가구를 지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체험이 끝나고 그 학생들이 나오나 짧게 한마디… “이 학생들은 이 세상에 없단다.” 지진체험을 시작으로 태풍, 화재 난 곳에서의 피난방법, 소화기 다루는 방법 등 순으로 체험을 하고 마지막으로 2층에 설치되어있는 헬리콥터를 타 볼 수 있었다. 방재센터 견학 후 다시 전세버스를 타고 뱃부로 이동하여 뱃부 지옥온천을 둘러 볼 수 있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일본 차 번호표의 색으로 경차와 일반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를 구분하는 방법, 일본 산림에 삼나무가 많은 이유, 일본이 비록 시간은 우리와 같지만 우리보다 1시간 일찍 해가 뜨고 지는 사실 등을 김상익 가이드 선생에게 들을 수 있었다.

뱃부 온천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시골의 저녁시간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김나오는 모든 곳이 다 온천이 나오는 곳이란다. 유황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지옥온천과 유노하나 유황재배지를 둘러보고 첫 날의 휴식처인 오이타 농가로 향

하였다. 도착하니 주인 아저씨가 우리들의 저녁을 실외에 차려놓고 계셨다. 기쁜 마음으로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 그로인해 조금 늦은 저녁식사가 되었다. 주인아저씨께서는 일본음식인 야끼소바(양념된 국수를 우리나라 철판과 같은 곳엘 볶아 먹는 것)와 고기, 주먹밥 등을 내어 주셨다. 그중에는 우리나라 고추장과 같은 고치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고추장을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것인가 보다. 다들 먹어보더니 맛이 괜찮다고 한다. 잠시 후 주인아주머니와의 대화 끝에 한국 고추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진짜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며 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한국의 순창 고추장이었다. 어찌나 반갑던지…

저녁시간이 끝나고 같이하신 선생님들과 다음날의 일정에 대하여 토론한 취침에 들어갔다. 8월 14일 5시에 눈을 뜨니 해가 중천이다. 서둘러 세안을 하고 아침 산책에 나섰다. 한산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느낌이다 산책 후 일본식(밥, 된장국, 삶은 계란

1개, 두부, 무 갈아 놓은 것, 찐지 3종류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하고 배따기 체험을 하러 농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우리나라 한계령이나 대관령보다 더 아찔하다. 어떻게 이 높은 곳에 길을 닦아 놓았는지… 존경스럽다.

그곳에서 주인아저씨에게 일본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이런 현실의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1시간가량의 배따기 체



▲ 뱃부 유황온천에서

힘 후 아쉬워하는 민박집의 아저씨, 아주머니와 헤어져서 기타큐슈의 에코타운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폐자재가 재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관계자에게서 들어 볼 수 있었다. 관계자의 설명이 끝난 후 각 회사별 재활용품이 전시되어있는 별관에 가서 둘러 볼 수 있었다. 참가한 학생들 모두 진지하고 관심 깊게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다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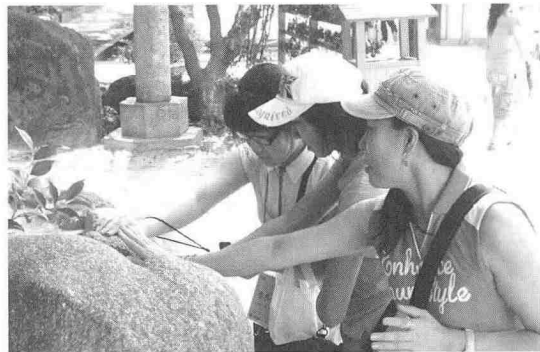
에코타운에서의 견학이 끝나 후 일본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이 모여져 있다는 신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점심식사 후 잠시 동안의 자유시간이 있었다. 이 신사에는 소의 동상이 있는데 그 소의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였다. 나 또한 입구에 소모양의 동상이 있어 머리를 만지면 머리 좋아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그마한 나무판자에 소원을 적어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니 역시 똑똑한 인물이 모여져 있는 신사답게 합격을 기원하는 내용이 대다수 이었다. 집합시간이 다 되어 감에 따라 전세버스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러던 도중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아까 만진 소 동상이 진짜가 아니란다. 진짜는 신사안쪽에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란...

버스에 올라 신모지항으로 이동을 하였다. 명문 웨리호를 타고 교토로 가기 위해서다. 명문웨리호에 오르자 배의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각자 숙소를 배정 받고 짐을 풀 후 학생들 숙소에서 다음날의 일정에 대하여 토론회를 열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유여행이다. 각 조별로 모여 앉아 교토지역에서 어디 어디를 갈 것인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몸이 더 안좋아 진다. 멀미기가 있는 것 같아 일찍 들어가 쉬기로 했다.

8월 15일 5시 30분 드디어 오사카항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언어적인 문제로 1조에 소속되어 (원래는 5조) 길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김상익 가이



▲ 일본 지진방재센터에서 헬리콥터 탑승훈련



▲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소가 있는 신사

드와 우리 25명의 인솔자와 학생들은 교토역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지하철이 장난이 아니다. 교토까지 무려 5번을 갈아탄다. 우리처럼 1호선, 2호선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선명이 좀 복잡하다. 내가 과연 1조를 잘 이끌고 다닐지 걱정이 앞선다. 우선 김상익 가이드선생에게 교토역까지 가는 선을 물어보고 비교해 보았다. 비교해 가면서 교토역에 도착하니 대중 지하철을 탈수 있을 것 같았다.

교토타워호텔에 일단 짐을 풀고 각조별 자유여행에 나섰다. 처음 1조와 동행하려 했으나 1조가 5조와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난 다시 4조와 동행하게 되었다.

니시키 시장 → 청수사 → 교토박물관 → 교토타

워 순으로 오늘 하루 일정을 정하였다. 그런데 교통보다 날씨가 문제였다. 38도를 넘는 피약벌 때문에 활동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 일단 학생들에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게 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을 시만 나서서 길을 안내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 주어서 너무 고맙웠다. 니시키 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청수사에 가서 소원도 빌고 교토박물관에 가서 여러 문화재를 둘러 본 후 교토 타워로 향했다. 교토타워는 바로 숙소위에 있어 우린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4조의 인솔교사인 오상록 선생님과 식후 토론회 간식을 준비하고 다음날의 일정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취침에 들어갔다.

8월 16일 아침 식사 후 나라로 향했다. 나라로 향하는 도중 자그마한 사건일 발생해 출발시간이 40분정도 늦춰졌다. 나라에 도착하여 어제와 같이 숙소에서 짐을 풀고 조별 활동에 들어갔다. 나는 어제와 같이 4조와 동행하기로 하였다. 오늘의 일정은 나라에서 동대사를 본 후 오사카로 이동 가이유간(우리말로 수족관)을 둘러보고 오사카시내의 변화가를 가보고 싶다고 한다. 그동안 같이 행동하면서 너무 학생들이 쇼핑하고 노는 것만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내심 걱정했는데, 그래도 우리 조는 적당히 조절하며 일정을 정하여 참 고맙다 일단 동대사를 향했다. 거의 모든 조가 동대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시작은 같이 하였다. 동대사 초입에는 사슴공원이 있다 나라시에서 사슴을 방목하는데 전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이 사슴을 더 무서워하였다. 일본 과자 전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전병을 사슴들에게 주다보니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몇 마리씩 달려든다. 나도 무서웠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사슴공원을 지나 동대사에 가니 어마어마한 불상이 우리를 반긴다. 절 앞에 만지면 아픈 곳을 낫게 해준다는 불상이 있었다. 나는 목이 아픈데 너무 높아 만질 수가 없다. 절 안으로 들어가 들

리보니 절 기둥 밑에 구멍이 하나 나왔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구멍을 빠져나온다. 그 구멍을 빠져나오면 오래살고 행복해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동대사 방문을 마치고 우리 조는 오사카 수족관으로 향했다. 일본의 명절인 오봉과 연수 일자가 겹쳐져서 수족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수족관 구경을 마치고 신사이바시라는 변화가로 향했다.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이 변화한 곳이다 그곳을 1시간여 가량 둘러 본 후 나라의 숙소로 향했다. 모두 7시에 집합하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늦을 것 같다. 김상익 가이드에게 전화하기 그쪽 팀도 늦을 것 같단다. 오늘 학생들을 보니 너무 대견했다. 나름대로 조그마한 회화 책도 준비하여 직접 일본인과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너무나 흐뭇했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숙소에서 들었다. 내일이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무사히 일정이 끝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8월 17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향했다. 가던 도중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 12시 50분 무사히 비행기에 올라 한국에 도착했다.

버스에 타고 한국4-H본부로 오는 도중 둘러본 우리의 산하는 너무나 정감어리고 따뜻했다. 무더위에 고생하며 학생들을 돌봐주신 선생님들도 너무 고맙고 잘 따라준 학생들도 너무 고맙다. 한국4-H본부에 도착하여 일본 그린배낭연수를 마친 소감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각자의 고향으로 향하였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감사합니다. ☺